

함평군 투자유치...순풍에 돛 단 듯

투자금 9228억 · 신규 일자리 1071개 창출 예상

투자협약 체결 · 체류형 관광 중심지 도약 목전

국내 대표 친환경 농업군인 전남 함평군이 기업도시로 향한 광복 행보를 펼치고 있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함평이 신규 유치한 기업은 총 14개로, 총 투자금액 242억 원에 고용 인원만 194명이다.

또한 공장 실거동을 위한 공장 등록 업체도 올해만 17개를 기록, 207억 원의 투자액과 177개의 정규 직 자리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함평 이전 또는 공장 신설을 약속한 기업도 7개에 달해 총 9,228억 원의 투자금과 1,07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지역 중견건설사인 ㈜서진건설과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전남 서남권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014억 원이 투입되는 사포관광지 개발 사업은 영산강변 학교면 일원에 ▲숙박시설(휴양도미니엄 3동, 관광호텔) ▲상가시설(스트리트 상가, 면세점, 부대시설) ▲윤

동오라시설(루지어드벤처, 전망대 리프트) ▲휴양문화시설(야생화정원, 트레킹코스, 국제학교, 온천장) 등의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18,46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365억 원, 세수유발효과 967억 원, 취업유발효과 14,477명이 기대된다.

특히 255만 명에 달하는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직접고용인원도 연간 총 9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함평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음츠렸던 지역산단도 서서히 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80%대 고분양률에 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함평산단 가동률은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한 55.6%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 50%를 돌파했다.

지난 2017년 국토부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 등 총 사업비 1,382억 원이 투입되는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함평 빛그린산단 조감도

조성사업도 올해 7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조성에 들어갔다.

계획대로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면 총 335개의 신규 일자리와 2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최근 첫 삽을 뜬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도 연계한 빛그린 국가산단도 현재 2단계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고 LH 임대주택 등 이를 뒷받침할 배후도시 개발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앞으로 군은 자체 보조금에 대한 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 유치 유공자·공무원·민간 포

합)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신규기업 유치에 매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보조금의 경우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투자기업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을 다수 유치해 지역기반인 농·축·수산업과 상생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 올해 거둔 투자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목포시, '2019 목포시 사회지표' 공표

목포시 관광여건 만족도 '음식점의 맛과 질' 50.1%

목포시가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조사한 '2019 목포시 사회지표'를 지난 26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사회지표는 목포시 표본가구 1,008가구 만 15세 이상 1,85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삶과 관련된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13개 부문 60개 문항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한 결과다.

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목포시의 관광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음식점의 맛과 질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및 서비스가 33.7%로 뒤를 이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다양한 숙박시설 설치 20.8%, 체계적 홍보 16.9%, 교통편의시설 확충 16.1%,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16.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산업 기업유치 확대가 4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28.5%, 아울렛 등 복합쇼핑센터 건립 19.2%, 문화시설 및 여가공간 조성 19.1%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40.1%로 가장 높았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취업 업체정보 36.8%, 구직비용 지원 2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시민 휴게공간 조성 30.4%, 상가주변 주차공간 확대 28.5%, 아울렛 등 복합쇼핑센터 건립 19.2%, 문화시설 및 여가공간 조성 19.1% 순으로 나타났다.

목포=박정수 기자

며, 일자리를 찾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채용정보 홈페이지 38.4%, 관공서 및 공공 취업지원 기관 32.6%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로는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42.7%, 쓰레기처리 1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대응정책 만족도는 측정망 구축 및 경보알림이 33.0%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41.1%로 전년도 35.2%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문화생활공간 23.2%, 보육 및 돌봄시설 19.7%, 보건의료시설 15.5% 순으로 조사됐고,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관리/증진 54.4%, 노인돌봄 39.4%, 아동양육지원 31.6% 순으로 조사됐다.

생활여건의 변화로는 대체로 1년 전과 변화 없음 수준이었으나, 관광여건(45.2%), 생활편의시설(35.8%), 교육문화여건(29.6%)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지표 결과를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하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이며, 내년 사회조사 추진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해남,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공모 확정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은 채소·화훼류 등 시설원예작물의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이다.

한빛동 영농조합법인은 산이면 덕호리 일대에서 딸기(1.3ha), 잔디 등(19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2ha의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딸기 재배온실을 내년 8월말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국도비 17억, 용자 및 자담 17

억 등 총 34억원을 투입해 ICT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온실과 축적된 환경 제어 기술을 갖춘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온실사업은 시설원예작물 재배에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온실내·외부 및 작물 환경까지 감안한 최적화된 생육관리와 복합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성 증가와 품질향상은 물론 노동력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주민설명회



완도군은 지난 24일 청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설명회를 청산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순

으로 진행됐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3년간 182억 원이 투입되며 해양치유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청산면 신흥리 마을에 추진되는 해양치유공원 조성 사업에는 12개의 테마형 해양치유 파빌리온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 제공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18억 원을 투입,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완도군 이송현 해양치유산업과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흑산성당 근대문화재 복원 · 관광자원화

우리나라 천주교의 초기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손암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했던 흑산도의 근현대사와 함께 했던 흑산성당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활동상을 복원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신안군은 12월 초 흑산성당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및 복원을 위해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흑산성당 일원에 흑산도

천주교 역사문화관, 선교 및 교육 시설 복원, 성지순례길, 순례자 숙소, 피정의 집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50억 규모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신안군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은 2020년 1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며, 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